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 | | | |
|------|----------------------------|--------------|--|
| 발행인 | 동지회중앙부 | Publisher | Korean Dongji Hoi |
| 발행소 |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 Address |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
| 사장 | 이정근 | President | Chung Kun Lee |
| 주필 | 김창원 | Editor | Donald C.W. Kim |
| 전화 | 850-849 | Telephone | 850-849 |
| 발행요금 | 1740 | Subscription | \$10.00 per year |
| 발행일 | 음력 3월9일 금요일 | Issue No. | 1740 |
| | | Date | April 25, 1969: Fri. |

금후 공격받으면 곧 보복행동

정찰비행에 나선 대통령 결의

(워싱턴 4월19일 밤, 에이피) 미국회의 수뇌층이 만안바에의하면, 닉슨대통령은, 장래 정보수집 관계의 미국합선 또는 항공기가 불법의 공격을받을 경우에는 곧 단호한 보복조치를 명명할 의향이다. 이것은 일본개상공에서 북조선군에의해서 격추된 정찰기의 비행이 계속될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닉슨대통령이 국회수뇌와 이야기하였을 때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 닉슨대통령의 정찰비행수행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널리 지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정찰기 호위 위해 일본해에 항공모함 출동 파견

엔진국방파견은 18일, 미해군기와 북조선비행기를 호위하기 위해 함선과 비행기가 파견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엔진국방파견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항공모함 1척 또는 2척이 일본해에 향하고 있는 모양이다. 항공모함 1척에는 오위용의 전투기들 90기가 적재되어 있고 미워입보도에의하면, 미에르넬에의 첫출동후 미서해안해역에서 거함공의 전함 뉴저지호 이 작전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지는데, 해군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구축함 3척은 어미수색을 위해 동태역에 파견되어 있다.

한국학생들의 직시 보복을 요구

조천여명의 항의 집회

(서울 4월19일 밤, 에이피)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남방 80마일의 청구와 동방 50마일: 안국주도시에서, 18일 북선의 미국기 격추사건에 대한 학생, 시민의 항의 집회가 거행되었다. 청구에서는 대학, 고등학교의 학생 7천명이 집회를 열고, 북선에의 보복을 미국에 요구하는 등 세양목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 단도시에서는 6백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북선대표가 미국과 국련군 대표를 비난

(동경 4월19일 밤, 에이피) 북조선.중앙통신사의 19일의 방송에 의하면, 만문집에 있어서의 조선.유권회담의 북조선 수석대표 리중순 육군소장은 "격추당한 미국기는 북선의 성공을 집행하고 있었다. 동기는 국제공역에 있었다고 하는 미국의 말은, 인정을 거역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공격하였다. 또 18일의 회담에서의 국련군 수석대표 리중순 육군소장의 회담에 대해서 "유권회담에 대한 허만이다" 라고 비난하였다. 한편 "안국주재의 국련군은 미상대기 체제에 들어갔다" 라는 서울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국련군사령부는 아무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제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미행군은, 니슨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미국기의 정찰비행을 도외하기 위해, 새로운 배제물야모 있다고 권해지고 있다.

미정부 보복공격을 일시 고려, 결국 중지

(워싱턴 4월 20일 밤, 공동) 케이펜들 미공화당하원의원은 20일 "니슨정권은 미정찰기 격추사건에서 북조선에 대한 보복공격을 일시 고려하였는데, 적당한 공격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중지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동의원은 "당국측으로부터 드는 이야기"로서, 동일의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것이다. 미공화당은 당초, 미국기를 격추시킨 북조선기의 발진기지와의 함정을 포함하는 공격 목표를 조사하였는데, 미행장은 포기되고, 함정은 공해로부터 영해에 이동하였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늦은 영적 명령

(워싱턴 4월 21일 밤, 공동) 미항공우주권리지 "에이비에이슨.앤드.스페이스.레노모지"는, 2일 발령의 지상에서 "정찰기가 북조선전투기에 격추당하였을 때, 미정찰기 권추기 5개 중대가 발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책임있는 장교가 동사건의 보고를 받은 것이 늦었기 때문에, 구원출동 명령을 낼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였다. 또 동지는 "작년 1월의 미정보수집합 후에 부도도워사건 시에는, 미국은 한국에 단지 6기의 권추기밖에 없었고, 이에 비하면, 재한미정찰기 권추기 수는 훨씬 증강되어, 비상사태에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고 말하였다. 한편, 미국방출성은 동기사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미제 7함대 포항에 집결중

(서울 4월 21일 밤, 공동) 서울의 군사소식통이 21일에 말한 바에 의하면, 모든 정보로 보아, 미제 7함대는 한국동안의 포항에 집결하고 있는 모양이다. 포항은 부산의 북양 70마일, 36도선에 있는 항구, 작년 1월의 주에 부도도워사건 시에도 미항공모함과 오위함대가 이 부근에 집결하였다. 동측은 미함대의 주력은 포항으로부터 이 이상 북상하면, 북조선기의 성격가능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미군기의 발진 극동의 안전위해사라면 시인

(동경 4월 22일 밤, 공동) 아이지 외상은 22일의 참원회 부위원회에서 미군기가 일본으로 발진하는 것에 대한 사회당의 질문에 대해서 "일본과 일본을 포함하는 극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이라면,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주목만한 발언을 하였다.

정부는 여태까지 미군기의 일본으로부터의 발진에 대해서, 일본의 국익으로부터 자주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사전협의에서 "가" "부"가 있을 것을 시사하여 왔는데, 이날의 답변은 더 이것을 집어 안 것 발언이었다. 이것은 본격적인 오기나와 반환고심을 앞에 두고, 정부가 반환우의 오기나와 미군기 지로부터, 본도기 지로부터의 미군기의 발진을 시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고, 동시에 시인의 경우의 하나의 기준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 "일본과 일본을 포함하는 극동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행동"에 대해서는 명백치 않고, 정부의 판단에 매기고 있기 때문에, 급우 야당 측으로부터의 추궁은 "꼭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부가세를 내년 초에 반감

(워싱턴 4월 21일 밤, 에이피) 니슨대통령은 21일 국회에 조세개혁안을 제출하고, 10%의 소득세 부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5%로 반감할 것, 2백만명의 "빈곤가정"을 적세면제한 것을 제안하였다. 니슨대통령은 전에 10% 부가세의 일년간 현장을 제안하였는데, 이번 이것을 변경하고, 현장기간을 반년으로 하고, 그 후 5%로 인하하는 것이다.

아랍연합돌격대 운하를 넘어서 공격

(이스라엘, 텔아비브 4월 21일 밤, 에이피) 이스라엘군 대병입세의 하변, 에지르(아랍연합) 돌격대는 21일, 엘.겔다라 북방 19마일의 지점에서 스에즈 운하를 넘어, 시나이 사막의 정령지대를 손잡고 넘어온 이스라엘군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측의 피해는 차량 1대를 대파, 3인이 부상하였다. 전에 19일 밤에도 에지르군은 스에즈 운하를 공격하고 있다. 또 21일 새벽, 율단강을 끼고, 이스라엘 율단양군간에 다시 모적이 교환되었다. 율단측의 발표에서는 율단군 1명이 사망, 10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측에는 4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의 군용기 2기가 격추되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측의 발표는 없다.

푸락의 대학에서 항의 스트라이크

(푸락 4월 22일 밤, 에이피) 체코소모바키아의 후사그신체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데, 가렐대학 문학부의 학생들은 21일부터 23일까지의 3일간 건물 점령, 수업포기의 항의 파업에 들어갔다. 가렐대학의 단 락부와 푸락의 단 락도 모두 22일에 동맹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당국은 지금 이 파업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내에 마저들 방침으로, 가두시위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다음의 핵무장 국가는 일본이라고 예측

(대관 4월 22일 밤, 공동) 일본방문중인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어벤.간박사 (하트슨 연구소장)는 22일 오후, 대관의 토이알.호텔에서 열린 국제연구회 주최의 원성주식회에서 언급하고, "일본은 여섯 번째의 핵무장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등, 다음과 같은 주목만한 발언을 명백히 하였다.

1. 일본의 경제성장은 가까운 장래, 이어 순조로이 늘어, 70년대는 소련, 미국보다 더 훌륭한 역량을 할 것이다.
1. 일본의 소위 핵반대는 이 수년간의 국민의 감정의 추이를 냉정히 분석하여 보면, 오히려 심각한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핵반대는 전후에 특유의 반전감정이며, 이것이 50%이고, 25%는 반미감정, 그리고 10%가 순수한 평화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오는 여섯 번째의 핵무장국은 인도나 독일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경찰의 체포권에 제한, 연방최고재결정

(워싱턴 4월 22일 밤, 에이피) 연방최고재판소는 22일, 6대 2로 "경찰이 용의자를 지문채취의 목적으로 구류하는 경우에는, 재판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라고 재정을 내렸다. 이 재정은, 경찰의 수사를 위한 체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존재되어 있던, 미조리주의 육인 소년 (14세)에 의한 86세의 백인 노파 폭행사건의 유죄판결은 소년의 지문이 법정에서의 증거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도가 되었다. 소수의견의 유고. 부패판사는 "완성의견은, 인권옹호에 관한 제 4조 수정안의 해석을 위장하는 것이다. (제 4편에 계속)



(제3편으로부터 계속)

제4조수정법은 시민의 안녕을 위해 본래의 의도의 범위에 돌러가야한다" 라고 말하였다. 제4조수정법은 "부당한 소색, 체포에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인데, 이번의 재정에서는 더 범위가 확대되어, 경찰의 취조에도 적용되게되었다. 윌리엄.부테남판사의 관성의견에서는 "경찰은 무제한으로, 생각할수있는 이유없이 구인의 목적으로 용의자의 몸을 잡고, 부분의한 구류에 부수되는 불 명예한 고문을 피할수없다" 라고 말하고있다.

하와이의 존슨씨가 고등변무관으로 임명

닉슨대통령은 4월24일 오노후주의 에드워드.존슨씨를 태평양신락영도고등변무관으로 임명한것을 발표하였다. 임명된 고등변무관은 극외상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동씨는 보법회사의 중역으로, 하와이가 영도로부터 주도되는기간 부지사 그리고 지사대리로서 지루하였다. 상원이 이 임명을 승인하면 하와이에서 두사람이 미국영도지행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된다. 에지자베스.푸레링은여사는 내무부의 영도과의 책임을 지고있으며, 신락동지영, 폴, 미국사모아, 버진 섬그리고 또한 미국영도를 돌보아보고있다. 이임명에 입을 쓴 아이벨.필상원의원은, 이임명은 다시 닉슨대통령이 태평양지구에서서서 하와이인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것을 도시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필씨는 이임명이 곧 상원에서 인준되기를 희망하고있다 고말하였다. 내무부장관 윌터.릭젠스와 푸레링은여사는 오는 5월초에 사이판에 갈 예정이다. 태평양보도관 지그러씨는 내무부장관이 마이크로네시아에가는것은 7년만에 처음있는일이라고 말하였다. 존슨씨는 인준을받으면 릭젠스를 동반할것이라고한다. 존슨씨는 윌리엄.노울(민주당)씨를 계승하여 이지책에 안게된다.

권희상목사가 기항

수년전 본토 하와이외지방 한인기독교회에서 구입부사로 시루타가 토디아에 마님 한인장모교회에서 목사로 시루, 그후에 퇴직하고 근년에는 그교회원의 권파를 심박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권희상목사는 이번 근원자로 권국하는두중 본말에들어서, 전에 교분이 본두하였는 하와이지방 한인교우들을 방문중, 권씨목사의 안내로 본사를 방문하고, 시간상관계로 본당의 일반교우들을 제재이 심박지못하고 떠나게되어 섭섭아라는 말씀으로서 모든 남녀모인교우들의 정감을 빌면서 출발 권국의 기도에 부탁하고한다.

한국의 친선사절단이 6월에 대항

태평양지구육군총사령관실모부위의 발표에의하면, 1969년도 한국친선사절단4명이 오는 6월9일경 오노후주에 기항 약 10일간 미군의 빌객으로서 하와이에서 여러가지방편의 행사에 참가하고, 특히 하와이한인사회의 일과 한인들의 생활상등을 견습하고 귀국마미라는데, 지난 4월 24일에 한인연합회대표와 각한인단체대표가 미육군본부에서 회합하고, 이들의 절대, 어정절정등에관해서 도의, 권설 회장으로 작년에도 시루아신 김장원 한인연합회회장을 지명하였다고한다. 이번 오시는분들의 성함과 약력을 아래와같다.

- 김 일태씨 (65세) 야구 코치, 서울잠실중학교 교사, 한국야구협회리사, 학벌은 서울 연세대 졸업, 제6아세아야구시합우승팀의 코치
- 송 학준씨 (54세) 구로 고등, 초등학교교장, 평양 유니온기독철문학교졸업, 한미 기술협회회장 부산 남포리리트림 부회장, 소년단관리회회원
- 박 성배씨 (26세) 춘천 태이디오 방송국국장, 한국문화선전에 공헌
- 서 명석씨 (41세) 한국서행사 부사장, 서울여행자문회회장, 국립공원의회회원